

‘막영애16’, 3.6% 자체 최고로 종영…공감의 힘



‘막영애는 영애씨’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16번째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tvN ‘막영애는 영애씨 시즌16’(극본 한설희, 연출 정형건, 이하 ‘막영애16’) 최종회가 평균 3.6%, 최고 4.3%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로 이번

시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막영애16’ 최종회는 영애(김현숙 분)와 승준(이승준 분)의 결혼식으로 막을 내렸다.

시청자들의 오랜 열원대로 이번 시즌에서 영애가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이 현실화된 것. 방송 말미 축

의금을 노리는 괴한을 터프하게 제압하며 “누구 죽이 금을 넘뢰? 나 이 영애야!”라고 외친 영애의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날 방송에서는 시즌 최종화에 걸맞게 역대 ‘막영애’에 출연했던 원년멤버들이 대거 출연해 반가움을 더했다. ‘대머리독수리’ 형관(유형

원년멤버 대거 출연 16번째 시즌 화려하게 마무리

현실적 에피소드 풍성·사이다 결말 후련함 선사

관 분), 둘이야’ 지원(임서연 분), 그리고 영애의 동생 영민(오승윤 분)이 영애를 축하해주기 위해 결혼식에 참석했다. 또한 시즌 12, 13에서 영애를 짹사탕하던 기용(한기웅 분) 역시 깜짝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이번 시즌 연출을 맡은 정형건 PD는 “이번 시즌 영애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영애의 결혼을 믿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이라며 “폐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친목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유달리 다사다난했던 ‘막영애16’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 현실 공감 200% 에피소드

유독 공감을 자아내는 현실적인 규현과 수현(손수현 분)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규현은 승준의 사촌동생이자 성인웹툰 작가로, 수현은 규

혁은 영애, 딸을 떠나보내는 영애 이씨의 사랑, 결혼을 앞두고 갈등과 회해를 반복하는 영애와 승준 커플 등 영애의 결혼을 둘러싼 이야기는 결혼을 겪었거나 혁을 예정인 시청자들에게 진한 공감을 안겼다.

여기에 고달픈 상황에 처한 캐릭터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져 공감도를 한층 높였다. 생계 유지를 위해 성인웹툰 작가로 들어선 규현(이규한 분), 임플란트비용이 부담 스러워 치통을 참는 서현(윤서현 분), 장인장모의 눈치를 보면서도 처가살(하)는 혁규(고세원 분) 등의 이야기는 좀처럼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꽉꽉한 현실을 반영,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 신구 캐릭터의 호흡

이번 시즌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규현과 수현(손수현 분)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규현은 승준의 사촌동생이자 성인웹툰 작가로, 수현은 규

한을 짹사탕하는 어시스턴트로 활약하며 극에 신선한 재미를 불어넣었다.

이들은 기존 출연진 간의 원舛한 호흡을 자랑했다. 수현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규현을 짹사탕하는 수민(이수민 분)과 팽팽한 대결구도를 이뤘다. 또한 규현은 때로는 영애의 분노를 일으키는 딥상 시청자들로, 때로는 규현 수민 수현 삼각관계의 중심으로 활약하며 폐회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 ‘막영애’ 사상 최고의 사이다 결말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의 결말은 영애의 결혼은 시청자들에게 후련함을 선사했다. 그동안 상당수의 여성 자들이 영애와 서로 아끼며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염원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대표 노처녀’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영애의 삶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막영애 16’이 떠난 자리에는 tvN 새 월화드라마 ‘크로스’가 방송된다.

송은이, 솔로→듀엣→걸그룹 ‘개가수의 진화’



드의 ‘잇유업(Eat You Up)’을 번안한 ‘셀럽파이브(부제: 쉴팁이 되고 싶어)’는 멤버들의 개성 있는 목소리와 김신영이 개사한 재치 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다. 특히

히 슈퍼주니어의 신동이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송은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김숙과 결성한 듀엣 ‘더블V’ 이름으로 3집을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난 20일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한 더블V의 송은이는 “김숙이 ‘언니쓰’ 음원으로 차트 1위 한 게 약 올랐다”고 텁걸성 계기를 공개했다. 김숙은 “음원이 70위 안에 들면 송은이가 나에게 건조기를 사주는 것이 유일한 계약조건이었는데, 실제로 56위에 성공해 건조기를 받았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 1998년 KBS 공채 10기 코미디언으로 방송 데뷔한 송은이는 지난 2000년 솔로카드로서 무려 10곡이 수록된 정규 1집 ‘이매진’을 발표하며 가수 경력을 선언했었다. 이후에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가수의 꿈을 펼쳐왔다.

한편 최근 송은이는 코미디언 가수로서 뿐 아니라 연예 콘텐츠 기획자로도 명성을 쌓고 있다. 최근엔 웹예능 ‘판밸리’를 성공시키며 타월한 기획력을 뽐내고 있다.

수지 vs 레드벨벳, 29일 한날한시 맞대결 누가 웃을까



음원 강자들이 맞붙는다. 수지와 레드벨벳이 한 날 한 시 신곡을 내고 컴백하는 것.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지는 1월 2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 2집 앨범 ‘페이시스 오브 러브(Faces of Love)’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1월 발매한 미니 1집 이후 1년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이번 앨범에는 전면에 내세운 타이틀곡 ‘홀리데이(Feat. DPR LIVE)’ 이외에도 다른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소녀’, ‘나쁜X’, ‘잘 자 내 끝까지’, ‘서툰 마음’, ‘너는 밤새도록’ 등 총 7트랙이 수록된다.

타이틀곡 ‘홀리데이’는 재복처럼 휴가가 연상되는 편안하고 나른한

‘레이드 백 R&B(Laid back R&B)’ 장르의 트랙이다. 그간 선보인 음악적 색깔과는 사뭇 달라 수지만의 색다른 매력이 극대화될 전망. 탄탄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DPR LIVE 피처링을 결들여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수지 또한 오랜만의 컴백인 만큼 그간 북려둔 음악적 열정을 오롯이 담아낸 최고의 앨범을 완성했다는 후문. 뮤직비디오도 ‘다른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홀리데이(Feat. DPR LIVE)’, ‘잘 자 내 끝까지’, ‘소녀’ 등 무려 4편이나 제작하고 미국 LA 유클리에션 촬영을 진행하는 등 이미 ‘역대급’ 컴백 준비를 마쳤다. 앨범 기획 및 제작 전반에 참여해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냈고, 특히

‘소녀’의 작사, ‘나쁜X’의 작사, 작곡, ‘너는 밤새도록’의 작사도 하면서 싱어 송라이터로서의 재능도 뽐냈다는 전언.

꽃길도 이미 예약돼 있는 모양새다.

수지는 정식 앨범 발매에 앞서 지난 22일 오후 6시 수록곡 ‘나쁜사람’을 사랑하고 있어’를 선공개했다. 수지는 이번 선공개 곡 작업을 통해 수지의 미니 1집 선공개곡 ‘나쁜사람’과 행복한 척’을 탄생시킨 아르미필로와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췄는데, 자신만의 청아한 음색이 둘로

이는 밸리드로 이별을 겪으며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여성의 마음을 살피나게 표현해 리스너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은 후성적으로 이어졌다. 앞서 수지는 지난 해 1월 미니 1집 선공개곡 ‘행복한 척’으로도 음원 차트 정상을 센권한 바 있다. 새로운 선공개곡 ‘나쁜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또한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을 포함해 지니, 벅스, 소리바다, 네이버뮤직, 유틀리뮤직 등 총 6개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에 등극했다. 24일 오전 기준으로도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수성하며 시장발고 있어 타이틀곡으로도 어떤 패거리를 이뤄낼지 기대를 높였다.

수지가 컴백일을 먼저 확정한 가운데 레드벨벳 또한 수지와 동시 컴백을 예고하고나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드벨벳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규 2집 리메이크 앨범 ‘The Perfect Red Velvet(더 퍼펙트 레드벨벳)’을 발표한다.

레드벨벳의 컴백은 지난해 11월 17일 발매한 정규 2집 ‘Perfect Velvet(퍼펙트 벨벳)’ 발매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들은 정규 2집에 수록됐던 기준 9곡에 3트랙의 신곡을 추가, 총 12곡으로 구성된 리메이크 앨범을 선사하기로 했다.

이에 레드벨벳의 풍성한 음악 색깔이 음악 팬들을 다시 한 번 사로잡을 전망.

소속사 측은 “타이틀곡 ‘Bad Boy(배드 보이)’는 힙합 기반의 R&B 댄스 곡으로, 그루비한 신스 멜로디와 무게감 있는 베이스 사운드가 중독성을 더하며, 가사에는 서로에게 끌리는 나쁜 남자와 도도한 여자의 아슬아슬한 감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드벨벳은 걸그룹 중에서도 내로라는 음원 강자로 꼽힌다. 데뷔 후 꾸준히 차트 1위에 오르며 강력한 음원 파워를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월드컵에 돌보였다. ‘Rookie(루키)’, ‘빨간 맷(Red Flava)’, ‘피카부(Peek-A-Boo)’로 3연속 히트를 기록하며 ‘2017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베스트 여자 그룹상, ‘2017 멜론 뮤직 어워즈’ TOP 10, ‘2018 골든디스크’ 음원 부문 본상 등 각종 트로피를 휩쓸은 것. 이번 앨범 역시 글로벌 음악 팬들의 쭉발적인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음력 12월 9)



▶[운세] 미혼 남녀는 혼담이 있다. 순수대로 행하면 행운의 배필이 정해진다. 지난친 자존심은 배필을 놓치는 적이니 신중히 생각하라. 서, 남쪽 사람의 인연인 듯. 5, 6, 12월생 처제에 주의하고, 한길만 택하라.



▶[운세] 가족으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겠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고, 음식도 조심하라. 애정은 부드러운 대화와 감축이 느껴지는 순길을 상대가 원한다. 용기와 부벽이 필요하다. 브, 층, ○ 성씨 가정에 활력소가 필요하다.



▶[운세] 하고자 하는 일, 진행이 순조롭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 집에만 있으면 병들고 짜증 나니 무언가 운명에 맞는 일을 하라. 구수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정에 불화가 있을 듯. 3, 5, 9월생 나 자신을 낚춰라.



▶[운세] 어려운 일이 산적했으니 심신이 피로하고, 짜증만 생긴다. 남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 친하다 해도 너무 밀지 말라. 오히려 본인을 이용할 궁리부터 한다는 것을 알라. 혼자 새로 시작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동업보다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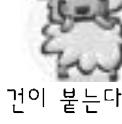
▶[운세] 책임 있게 하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심할 수 있다. 브, 브, ○ 성씨는 자기가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 전가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니 받아들이라. 남의 마음을 알아줘야 자신도 이해를 받는 법이다.



▶[운세] 아래 사람을 잘 다스리고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 없이 훌린 말 탓에 큰 불운을 당할 수 있다. 사람의 무리하게 돋을 따라가는 것보다 돈의 사람을 따라야 자연스러운 법이다. 진실한 지혜를 받아들이라. 서쪽 사람의 도움 줄 듯.



▶[운세] 변동하자니 뜻대로 안 되고, 돈 쓸 곳이 많아 융통력이 그것도 잘 안 된다. 현재는 불황 상태라 마음이 답답하겠다. 4, 7, 11월생 애정, 자식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라. 애정은 양보할 것.



▶[운세] 처음에는 인내하고 노력하더라도 끝맺음을 그르치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간다. 행운은 항상 오는 거이 아니다. 기회를 포착하라. 2, 8, 12월생 자본이 없다고 여자 돈을 사용하면 조건이 붙는다.



▶[운세] 무슨 일인든 심사숙고해 결과를 추측해 보고 결정해야 해를 막을 수 있다. 대인 관계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처리하려는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다. 3, 7, 9월생 삶에 노력이 필요할 때.



▶[운세] 현재 금전 유통이 안 된다고 변동하게 되면 일시방편 만 될 뿐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한다. 내달부터는 풀릴 듯한 인내력이 필요할 때. 브, 브, ○ 성씨 내 것 아니면 탐방지 말라. 관재수가 뒤따라 드.



▶[운세] 남녀 관계에 끌어 빠지지 말라. 구설이 생긴다. 분수를 명각한 행동은 가장 피坦은 물론 관재수까지 등반하니 모든 것을 억제하라. 3, 5, 11월생 부부간 대화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양보는 가정에 웃음꽃을 피운다.



▶[운세]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는 수다. 본인의 단점은 우물에서 승승 찾는 것. 달콤한 남의 말 열 마디를 듣는 것보다 가족의 진실한 총고 한마디가 본인에게 더 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 ○ 성씨 자기 자신을 지키라.